

# 상급종합병원 임상실습 중 갈등 경험: 현상학적 연구

곽수영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e-mail:sykwak@kmcu.ac.kr

## Conflict Experiences During Clinical Practice at Tertiary Hospitals : A Phenomenological Study

Su-Young Kwak  
Dept. of Nurs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 요약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study to describe and understand the essence of this experience by identifying the structure of the experience and the meaning of the conflict that nursing students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students who were currently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nd had conflict experiences during clinical practic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nflict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ould be structured into 3 categories, 8 theme groups, and 33 themes.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most of the conflict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that the participants are experiencing are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grades, and this experience well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clinical practice conducted in group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은 배운내용을 현장에서 실습해보는 중요한 과정이다. 임상실습을 통해 이론교육과 교내실습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상황을 통해 경험하고 간호사로서의 부족한 역량을 점검하고 기본 능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또한, 간호사가 되기 전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이며, 임상현장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그들이 갖는 신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임상실습에서 간호학생들은 지식의 적용, 분석을 통한 종합, 평가단계를 실습하는 과정을 경험하여야 하나 배운지식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간호학생이 느끼는 어려움은 매우 크며 자신이 배운 지식이 소용없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한다. 특히 임상실습을 처음 접하게 되는 3학년 학생의 경우, 교내실습과 이론으로 배운내용으로 임상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임상실습 중 대학에서 배운 이론이나 교내실습 내용이 임상상황과 불일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배운 내용을 불신하게 되거나 좌절감, 무력감, 자기효능감이 떨어져서 결

국 간호전문직에 대한 신념체계가 손상되게 된다. 또한, 임상실습은 실습조 단위로 진행되므로 조원들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실습현장이 임상이기 때문에 실시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속에서 실습하는 학생들을 배려해주지 못하는 상황도 간호학생들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현재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연구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임상실습 중 갈등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임상실습 관련 갈등을 이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기술하고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개인들의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경험의 보편적 본질과 의미를 밝힘으로써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이 연구방법은 개인들의 공통적인 경험 속에서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규명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상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는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 현상을 이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이들의 관점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이들의 갈등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의 의미와 경험의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이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중 간호학생이 겪고 있는 갈등 경험의 본질을 이들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기술함으로써, 추후 간호학생들의 갈등 완화 및 임상실습의 질적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 중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고 있는 갈등의 의미와 경험의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이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중 가지고 있는 갈등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이 경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 2.2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로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중이면서 임상실습 중인 4학년 학생들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여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원한다고 응답한 자로 선정하였다.

### 2.3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하고 질적연구 세미나와 학술대회에 다수 참석하여 질적연구 수행을 위한 역량을 쌓았으며, 현상학 및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자는 임상실습 교유경력이 10년 이상이므로 임상실습 중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의 구조와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시작 전, 진술 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수집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 그리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장소는 서로의 대화가 방해받지 않으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 편안할 마음으로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방학 중 연구실에서 실시하였다.

### 2.5 자료분석

참여자의 개별 면담자료에 대한 분석은 Colaizzi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제1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의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각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얻었다. 제2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의 필사본을 읽으면서 참여자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문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문을 중심으로 주요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주요 진술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한 단계 더 추상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였다. 제4단계에서는 의미들 중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고 분류함으로써 주제를 조직하고, 주제를 묶어 주제모음으로, 주제모음을 묶어 범주로 조직하였다. 제5단계에서는 주제모음들이 나타내는 현상을 주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제6단계에서는 임상실습 중 간호학생의 갈등 경험을 범주, 주제모음, 주제를 통해 기술하였다. 제7단계에는 참여자로부터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면담 방법, 비밀보장과 익명성, 자발적 연구 참여 및 중단 가능성, 연구 후 면담 자료의 폐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 내용의 녹음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으며, 컴퓨터에 필사할 때에는 이름대신 번호로 저장함으로써 면담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였다.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로 기프트콘을 지급하였다.

### 2.7 연구의 엄격성 확보

Sandelowski가 질적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4가지 기준인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가능성(auditability), 및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기준으로 연구의 타당성과 엄격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1) 연구결과의 진정성(truth value)을 나타내는 신뢰성은 참여자로부터 임상실습 중 간호학생의 갈등 경험을 연구자 개입 없이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 면담은 개방형 질문으로 실시하였고, 이들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구자는 중립적이고도 무비판적인 태도로 선입견을 차단하면서 경청하였다. 녹음된 면담자료는 간호학생이 진술한 갈등 경험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 면담 당일 필사하였고, 이때 보완이 필요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면담에서 추가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필사된 원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분석의 오류를 계속 수정하였으며, 연구

자들이 따로 또는 함께 분석을 진행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 적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의 갈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참여자를 추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감사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상학적 방법에서 제시하는 분석방법을 따라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자의 분석 과정과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참여자로부터 타당성을 확인 받았다.

4) 확인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해석이나 분석을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에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3. 연구결과

7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원자료에서 추출한 주요 진술 중 구절과 문장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진술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들 의미로부터는 일반적인 의미를 도출하여 참여자의 임상실습 중 갈등 경험을 나타내는 주제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 이들 주제는 더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도출된 주제모음과 범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임상실습 중 갈등 경험의 범주는 ‘공평하지 않은 실습환경’, ‘윤리적 갈등’, ‘희생양이 필요함’였다. 참여자의 영적 갈등 경험을 범주와 여기에 포함된 주제모음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범주 ‘공평하지 않은 실습환경’에 포함되는 주제모음은 ‘동일하지 않은 업무량’, ‘개인상황이 고려되지 않음’이었다. 학생개인에 따라 과중한 업무량으로 식사 시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거나 잘 모르거나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업무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휴게실에서 쉬게 되고 잘 아는 학생들은 일을 더 맡게 되므로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업무를 잘 처리하면 선생님들이 계속 업무를 시켜서 집담회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실습상황이 겹이어서 숨어있는 동기들의 짐도 져야했다.

“선생님이 업무분담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바빠지면 파트개념이 없어지고 학생을 다 부르시니까 불려서 하는데 근데 나는 재가 하던거 하기 싫어 이렇게 되면 재가 희생올 해야 되요. 내가 이걸 할테니까 니

가 이걸 해줄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라도 선생님이 부탁하신 걸 다 끝내야 했어요.역할 분배를 했어요.”

식사 순서에 대해 갈등이 일어나거나 타학교학생들과 실습여건에 대한 갈등, 4학년이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시키시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

“샘 옆에 따라다녀하시고 시범을 선생님들이 보여주 시기는 하는데 4학년이면 다 알겠네 그러시면서 다 시키세요.”

범주 ‘윤리적 갈등’에 포함되는 주제모음은 ‘윤리적 갈등을 겪음’, ‘동기들의 이기주의에 대한 실망’, ‘내 할 일이나 잘하자고 생각함’이었다.

집담회 후에 정해진 시간에 실습지로 복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쉬기를 원하는 동기로 인해 갈등하게 되거나 의무기록을 사진촬영하는 모습으로 인해 의료윤리준수와 관련된 갈등이 있었다. 지각하는 조원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하는 상황이 윤리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휴게실에서 쉬는 학생들을 보며 선생님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타대학 학생이 휴게실에서 쉬고 하니까 저희 조 애들까지 결국 그렇게 되는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저는 눈치보여서 그런 행동을 못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이제 애들이 이러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애들이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별말안하시니까 애들까지 휴게실에 앉아서 이려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저게 절대 안될텐데 왜 저렇게 그러는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갈등을 했어요.”

조별 실습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으로 혼자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나 실습변표 작성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변표를 강요한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하게 되는 것도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

“듀티를 짜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서 실습 변표를 짜오라고 하셨는데 언니 두명이 있었는데 언니이기 때문에 데이는 힘들어서 이브닝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동기를 도와주다가 혼나는 상황이 되어 내 할 일이나 잘해야

됐다 느끼기도 하였으며 갈등해결을 위해 접점을 찾기 위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였다.

“OP바이탈을 그 파트 학생만 재기 힘들어가지고 일단 옆파트 쉬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어떤 파트는 적고 어떤 파트는 많은 상황에서 제가 적은 파트였는데 친구들이 도와주다가 제가 어떤 분의 바이탈을 담당학생이 잦던 분을 또 재는 상황이 있었어요.”

범주 ‘희생양이 필요함’에 포함되는 주제모음은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희생양이 필요함’, ‘조별성적에서 불리해질까봐 걱정됨’, ‘업무 분담을 위해 잘 모르는 동기를 가르치고 격려함’이었다.

조원들 간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위해 이쪽저쪽 신경을 써야 하고 조원들이 협력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것이 억울하지만 단체생활이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조장으로서 아등바등 해보지만 노력하지 않는 조원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조별활동에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왕따를 시킨다던지 무시를 한다던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딱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재를 제가 해야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습에 까지 지장이 되고 다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해내야 하는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학생이 해야할 일은 많은데 학생들은 하기 싫어하고 조별성적에서 불리해질까봐 불안해 하였다. 실습성적을 신경쓰지 않는 동기들로 인해 혼자 아등바등하게 됨

“저 빼고는 사실상 대학병원 생각도 없는 애들이고 의욕도 없고 실습에 그렇게 매진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저 혼자 아등바등하게 끌여가는게 제일 힘들었고, 조원들에게 말을 하면 4명은 전부다 그냥 대충하자 그리고 저는 이래도 되나 제가 혼자 나쁜사람 되는거 같고 이래도 되나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업무처리를 못하는 동기의 일을 떠맡게 되는 것이 부담되어서 시범도 보여주는 등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업무에 대해 겁내는 동기를 격려하기도 하였다. 맡은 역할에 대해 책임감있게 해내지 못한 동기대신 질타를 받기도 하였으며 내 업무가 과부하되지 않기 위해 임상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동기를 가르쳐 주어야함 하였다.

“학생이 아직 꼬마를 못때고 쓰리웨이를 못쓴다는 거예요. 4학년인데 아직 한번도 안해보고 선생님 하는거만 많이 봤고 해서 이번에 너가 해봐라 하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이거하다가 잘못하면 잘못해도 별거없는데 겁이 나니까 한번도 못해본 거더라구요.”

#### 4. 결론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임상실습 중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고 있는 갈등의 의미와 경험의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이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고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중이면서 임상실습 중 갈등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갈등경험은 3개의 범주와 8개의 주제모음, 33개 주제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중 갈등 경험은 많은 부분이 임상실습 성과와 관련이 있으며 이 경험은 조별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Sandelowski M.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8, no3, pp. 27-37, 1986.
- [2] 이성은.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경험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권 2호, pp. 333-348, 2001.
- [3] 박현주, 안효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눈치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5권 1호, pp. 48-57, 2019.
- [4] 오두남, 엄영란, 김춘미, 주세진, 최정현, 박명숙.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대처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권 4호 pp. 430-440, 2016년